

TV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and times.



“일희일비 하지 않고 매사 최선을 다할 뿐”

‘가족끼리 왜 이래’·‘전설의 마녀’서 쌍끌이 인기몰이 유동근·전인화 부부

이러기도 쉽지 않다. 남편은 KBS 2TV 주말극 ‘가족끼리 왜 이래’로 시청률 40%를 넘어서고, 아내는 MBC TV 주말극 ‘전설의 마녀’로 시청률 30%를 넘겼다. 두 작품 시청률을 합하면 70%다. 반면에 SBS TV가 방송 중인 두 편 주말극은 모두 시청률이 2%대다. 결국 시청률이 넘쳐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부부가 주말 안방극장에서 주연으로 쌍끌이 인기몰이 성공하니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유동근(59)-전인화(50) 부부다. 1989년 결혼해 올해 결혼생활 만 26년째인 연에게 대표 일고부부를 최근 이들 간격으로 잇달아 만났다. 촬영 스케줄이 다르고 바빠서 함께 만날 수 없었던 게 아쉬울 따름이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따로 따로 인터뷰한 두 사람이 마치 서로 입을 맞춘 듯 이구동성으로 냈다는 점이다. “나이가 들수록 매사에 고마움이 더 커집니다.” 부부는 일일동체였다. ◇“시청률요? 우리 성격이 사실 좀 무덤덤해요”=2014년은 유동근의 해였다. 초반에는 KBS 1TV ‘정도전’의 카리스마 넘치는 이성계로 깊은 인상을 심어준 그는 이어 ‘가족끼리 왜 이래’의 자상한 두부장수 아버지 차순봉으로 시청자들의 가슴을 적셨다. KBS는 연말 2014 연기대상을 그에게 안겼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전인화는 ‘전설의 마녀’에서 복수심을 품은 재벌가 첩 차영란 역으로 남편의 인기로 보조를 맞췄다. 각각 다른 드라마임에도 이들 부부가 극중에서 맡은 역할이 모두 차씨라는 점도 공교롭다. 하지만 부부는 드라마의 높은 시청률과 인기에 대한 축하에 무덤덤해했다. “고마운 일이지. 하지만 나나 집사람이나, 우리 성격이 그런 거에 크게 반응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좀 무덤덤한 스타일이죠. 금방 분위기에 휩싸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유동근)

“스타라고 해봤자 별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아니까요. 어차피 연기할 때가 아니면 나도 한 사람의 주부이고 엄마로 돌아갑니다. 인기가라는 게 다 부질없는 것을 아니까 아빠랑 나는 일희일비하지 않아요.”(전인화) ◇2002년에도 ‘명성황후’와 ‘여인천하’로 쌍끌이 인기= 유동근-전인화의 쌍끌이 인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02년 KBS 2TV ‘명성황후’와 SBS TV ‘여인천하’로 나란히 그해 연말 KBS연기대상과 SBS연기대상을 거머쥐었다. 두 드라마 모두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화제작이었고, 각기 흥선대원군과 문정왕후를 연기한 이들 부부의 빼어난 연기는 안방극장을 들었다 놓았다 했다. “사실 그때 더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 그때도 우리 너무 좋아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시청률이 귀한 시기에 각자의 작품이 잘돼서 더 고마움을 느끼죠.”(전인화) 둘은 상대의 작품에 대해서도 많은 말을 했다. “제가 ‘가족끼리 왜 이래’ 팬이에요. 어떤 그렇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지 나를 돌아보게 해요. 또 죽음을 징징 짜지 않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전인화) “‘전설의 마녀’ 같은 드라마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재밌게 보고 있어요. 당위성, 개성성, 상식선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막장도 다 같은 막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유동근) ◇“자식들과 대화 많이 해...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죠”=‘가족끼리 왜 이래’의 차순봉은 물론이고, ‘전설의 마녀’의 차영란도 자식 때문에 속을 끓인다. 유동근-전인화는 슬하에 1남1녀를 뒀다. 올해 딸이 23세, 아들이 22세로 둘 다 대학생이다. “전에선 고민이 있어도 나도 아이들에게 말하는 게 좀 그랬고, 아이들도 아빠의 고민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드라마를 하면서 자식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편하게 속을 터놓는 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알게 됐죠. 요즘 아이들과 대화 많이 해요.”(유동근) “아들이 중고등학교일 때는 내 뜻대로 애들을 키워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근데 애들을 키우며 나도 성장을 했어요. 아이들이 내 소유물이 아니고, 아이들이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전인화)

EBS

Table with columns: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EBS channels.

‘보이후드’vs ‘버드맨’ 영예의 작품상은?

22일 미 아카데미영화상 시상식

미국 최대의 영화 축제인 제87회 아카데미영화상 시상식이 오는 22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서 열린다. 올해는 ‘버드맨’과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 작품상과 감독상 등 9개 부문 후보에 각각 올랐다. 최고 영예인 작품상 부문에는 총 8개 작품이 올랐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보이후드’와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나리투 감독의 ‘버드맨’이다. 두 작품은 아카데미의 전조전으로 치러진 각종 영화상에서 작품상을 나눠 가져다. 골든글로브와 영국아카데미영화상은 ‘보이후드’의 손을, 미국감독조합상과 미국배우조합상은 ‘버드맨’의 손을 각각 들어줬다. 두 작품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나머지 작품도 만만하지는 않다. ‘버드맨’과 함께 최다 부문 후보에 지명된 웨스 앤더슨 감독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골든글로브에서 뮤지컬·코미디 부문 작품상을 받았다. 여기에 모든 팀 감독의 ‘이미테이션 게임’도 작품상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밖에 현재 드러머 학생과 폭군 선생의 광기를 그린 다니엘 차펠레 감독의 ‘위플래쉬’, 마틴 루시 킹 목사의 일대기를 다룬 에바 두버네이 감독의 ‘셀마’,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아메리칸 스나이퍼’, 스티븐 호킹의 일대기를 그린 ‘사랑에 대한 모든 것’도 작품상을 놓고 겨룬다. 할리우드 연기파 배우로 꼽히는 줄리안 무어는 알츠하이머에 걸린 여교수 역을 맡은 영화 ‘스틸 엘리스’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라 비앙 로즈’에 이어 외국어 연기로 오스카 2회 연속 수상에 도전하는 프랑스 여배우 마리옹 꼬띠아르(‘내일을 위한 시간’)를 비롯해 로자먼드 파이크(‘나를 찾아줘’), 리즈 위더스푼(‘와일드’), 펠리시티 존스(‘사랑에 대한 모든 것’)가 줄리안 무어의 경쟁자다. 남우주연상의 유력한 후보는 ‘루게릭병’에 걸린 스티븐 호킹 박사를 연기한 에디 레드메인(‘사랑에 대한 모든 것’)이다.

자파르 파나히감독 ‘택시’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

나영길 감독 ‘호산나’ 단편 부문 영예

이란의 진보파 유망 영화감독 자파르 파나히가 연출한 ‘택시’가 14일(현지시간) 제65회 베를린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인 황금곰상을 거머쥐었다. 이로써 지난해 중국 영화 ‘백일영화’에 이어 두 해 연속 아시아권 영화가 최고 타이틀을 차지했다. 단편 부문에서 경쟁한 나영길 감독의 ‘호산나’가 단편 황금곰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작 ‘택시’는 파나히 감독이 스스로 노란색 택시를 몰고 다니며 테헤란의 다양한 승객들과 이력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을 담았다.

단편 황금곰상을 받은 ‘호산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 졸업작품으로, 33세의 나 감독이 아프거나 다친 마을 사람들을 치유하고 죽은 자들을 되살리는 소년을 주인공으로 삼아 연출한 작품이다. 한국영화의 단편 황금곰상 획득은 2011년 61회때 박찬욱, 박찬경 감독의 ‘파란만장’이 있었기 때문이 이번이 두 번째다. 한편, ‘택시’의 황금곰상 다음 서열 상인 은곰 심사위원대상은 칠레 파블로 라르라인 감독의 ‘더 클럽(열 클럽)’에 돌아갔다. 최우수감독상(은곰상)은 폴란드의 말고자타 주포프스카 감독과 루마니아의 라두 주데 감독이 공동 수상했다. 여우주연상(은곰상)과 남우주연상(은곰상)은 영화 ‘45년’에 출연한 영국 배우 사투 램플링과 톰 커트니가 각각 받았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6일(음 12월 28일 癸亥)

- 48년생 강력한 기득권의 횡포 앞에서 휘둘릴 수 있다. 60년생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72년생 참신한 발상만이 진부함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84년생 불안정한 부분이 보이거든 충분히 보완해 줘야 하겠다. 행운의 숫자 : 64, 24
49년생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나을 것이다. 61년생 음달에도 햇볕 날 일이 있느니라. 73년생 내버려 둔다면 급속히 냉각되어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 85년생 단순하게 판단하거나 무리나 다면 실책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0, 84
38년생 입장에 따라서 관점이 완전히 달라 질 것이니라. 50년생 판단의 징표를 찾게 되리라. 62년생 상대적임을 알라. 74년생 확실하게 구분해 두어야 한다. 86년생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0, 48
39년생 선택하기보다 선택되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 51년생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한다. 63년생 만사를 제쳐두고 처리해야 할 일이 보인다. 75년생 효과를 보기에는 아직 이른 마당이다. 87년생 문제에 부각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2, 18
40년생 임하는 자세와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52년생 발 빠른 후속 조치가 절실한 모양새이다. 64년생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강구할 일이다. 76년생 이만까지 고려해야만 결실해 질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56, 91
41년생 관인 사정의 변화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53년생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저 소모적일 뿐이다. 65년생 처지와 분수에 맞아야만 유용하리라. 77년생 힘들면 쉬었다 하되 절대로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20, 95

- 42년생 우연한 환경의 상황을 목도하게 된다. 54년생 집착과 부담감을 버리고 초심으로 밀어 붙이면 틀림없이 성사된다. 66년생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78년생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11, 66
43년생 참으로 중대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국면이다. 55년생 선불리 숙단하면 관련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67년생 극진한 정성으로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 79년생 가장 절실한 부분부터 손을 대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82, 30
44년생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세밀함이 필요하다. 56년생 노력에 계속된다면 반드시 목적을 달성 하리라. 68년생 사용과 관리에 빈틈이 없어야겠다. 80년생 다양성의 가치를 인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13, 45
45년생 즐거운 하루가 된다. 57년생 불편하기는 하나 흥사는 없고 그저 평길뿐이다. 69년생 유사함이나 중복을 피하는 것이 무방하도록도. 81년생 가져다 있던 실력까지 총동원하여 발휘하는 것이 이적이다. 행운의 숫자 : 70, 97
46년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적인 모순을 해소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58년생 부실한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순탄하리라. 70년생 안전하지 못한 양태이니 즉시 조처해야 한다. 82년생 마음 먹기에 따라서 탈바꿈 될 수 있겠다. 행운의 숫자 : 53, 87
47년생 가제는 개 편임을 잊지 말라. 59년생 너무나 비슷해서 진위를 혼동하기 쉬운 것이니라. 71년생 약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야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 83년생 하루가 다르게 변할 수 있으니 예의 주시하라. 행운의 숫자 : 90, 9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